

양효진 '아마 골프 최강' 입증했다

2위 2타차 제치고 호주 아마추어 마스터스 우승
중학생부터 국내 아마 1위... 국제대회 첫 '정상'

'여자골프 기대주' 양효진(18·제주 남녕고2)이 호주 아마추어 마스터스에서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양효진은 6일(한국시간) 호주 멜버른 서던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2개, 더블보기 1개로 이븐파 73타를 적어내며 최종 합계 6언더파 286타로 2위인 호주의 엘란 스케이브룩을 2타 차이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지난달 말레이시아 아마추어 오픈에서 2위를 차지한 양효진은 국제 대회 첫 우승을 차지하는 기쁨을 누렸다.

3라운드까지 스케이브룩에 2타 뒤진 2위였던 양효진은 이날 극적

인 역전승을 차지했다.

양효진은 한 달 전 신지애가 우승컵을 거머쥔 프로대회인 ISPS한다호주오픈에서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제치고 3위에 오른 바 있다. 양효진은 특히 2라운드까지 신지애를 제치고 단독선두에 나서는 때서운 실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양효진은 "호주에서 가장 명문 아마추어 대회인 호주 아마추어 마스터스 대회이자, 2025년 새해 첫 대회에서 우승하게 돼 영광"이라며 "ISPS 한다 호주 오픈 대회 때도 좋은 기억들이 많았는데 한 달 만에 찾은 호주에서 우승하게 돼 아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양효진은



골프 호주 아마추어 마스터스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양효진(남녕고2). 대회 제공

이도초와 노형중을 졸업했으며 '2022 SK네트웍스-서울경제 레이디스클래식' 14위(아마추어 1위), '2021 KPGA투어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아마추어 1위 등 중학교 때부터 프로대회 아마추어 1위를 차지하면서 '프로 잡는 아마추어'로 유명하다. 위영석기자 ysw1968@ihalla.com

베트남 명장 김상식 "전북팬 야유도 그리워"

동남아의 월드컵인 '미쓰비시컵' 우승

베트남 축구대표팀에서 동남아 최대 축구 축제 2024 미쓰비시컵(미쓰비시컵) 우승을 일구며 지도자 경력의 반전을 이뤄낸 김상식(48) 감독은 7일 한국 취재진의 화상 인터뷰에서 웃으며 말했다.

'김상식호' 베트남은 지난 6일(한국시간) 끝난 미쓰비시컵 결승에서 태국을 1, 2차전 합계 5-3으로 물리치고 우승했다.

김상식호가 이 대회에서 6년 만이자 통산 3번째 우승을 일구자 베트남에선 축제가 펼쳐지고 있다.

김 감독은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축하를 많이 해 주신다. 정말 감동적이다. 박 감독님이 이런 대접을 받는 걸 지켜봤는데, 그걸 내가 받으니까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김 감독은 암울한 시간을 보냈다. 김 감독은 선수 시절부터 몸담았던 K리그 1의 '거함' 전북 현대에서 2021년 프로 사령탑으로 데뷔했다.

2021시즌 정규리그 우승, 2022시

즌 정규리그 준우승과 FA컵 우승이라는 좋은 결과를 냈지만, 2023시즌 하위권으로 떨어지고 말았고 시즌 중 지휘봉을 내려놨다.

당시 전주성예선 '김상식 나카라'는 구호가 끊임없이 메아리쳤다. 일부 극성팬들은 김 감독의 가족에게까지 비난하는 도 넘은 행동을 했다.

전북에서 나온 뒤 방향을 많이 했다고 털어놓은 그는 "그래도 시작해야 했다. 멈추지 말아야 했다. 확신은 없었지만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돌아봤다.

그는 "(우승을 확정 짓자) 전북 생각이 많이 났다. 우승을 통해 전북팬들에게도 (내 실력을) 보여준 것 같다. 사람이라는 게 고운 정, 미운 정이 있다. 나가라고 외치던 함성이 그리기도 하다"며 활짝 웃었다.

김 감독은 앞서 '길'을 닦아 준 박항서 감독 덕에 좀 더 수월하게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며 고마워했다.

김 감독은 "박 감독님이 경기 끝날 때마다 조언해주시고 응원해주셨다. 우승 뒤에도 전화로 격려해주셨다. 감사드린다"면서 "내가 우승을 한 배경에는 박 감독님 지원이 있다"고 말했다.



미쓰비시컵 우승 세리머니 펼치는 베트남 선수단과 김상식 감독. 연합뉴스

신년대담 정재훈 제주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모든 장애인이 함께하는 체육환경 만들것"

정재훈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을사년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장애인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2025년 청사해의 새해를 맞아 제주자치도장애인체육회의 새해 계획과 목표를 들어봤다.

▶올해 주요 계획은.

우선 제주에서 처음 개최되는 2026년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제주를 방문하는 장애인선수와 가족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에도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제주 장애인체육이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2026년 체전 대비 구체적으로.

지난해부터 전국장애인체전준비기획단을 신설,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린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장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올해는 기획단의 규모를 키워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경기장 답사와 시설 점검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최적의 경기 환경을 마련하고 선수들 지원을 강화해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은.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체육을 통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



정재훈 제주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장애인 체육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전국체전·도민체전 성공 개최"

유·청소년 캠프, 어울림대회 등 지원

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절스포츠 유·청소년캠프를 개최하고, 동호인클럽 활성화와 다양한 체육 교실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종목별 어울림대회를 지원하고, 장애인체육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 준비 상황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와 공동 주최로 열렸던 도민체육대회에서 장애인부를 독립시켜 올해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처음인 만큼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성공적

인 대회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다양한 경기와 이벤트를 준비,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도민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함께하는 장애인 체육, 함께 여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제주의 모든 장애인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최종 목표이다. 앞으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

대담·위영석 뉴미디어부장

장운혁·홍자현 장애인국대 코치 발탁

도장애인체육회 소속... 국제대회 지도 경험 '풍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직장 운동경기부 지도자인 장애인배드민턴 장운혁과 육상 홍자현이 2025년 국가대표 코치로 발탁됐다.

장운혁 지도자는 지난 2023년 국가대표 코치로써 국가대표를 견인한 전력이 있으며, 특히 그 해 항저우장애인아시아대회에서 신

경환 선수를 뒷받침해 남자복식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홍자현 지도자는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3관왕에 등극한 강별 선수를 지도하고 있으며, 특히 강별 선수가 2024 이탈리아 오픈 챔피언십에서도 원반던지기 1위, 포환



장운혁 코치 홍자현 코치

던지기 3위를 달성해 제주 장애인체육의 위상을 드높였다.

위영석기자

초록우산 제주후원회 회장 이·취임식



제주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언제나 든든한 초록우산이 되어준 제주후원회가 2025년 1월 힘찬 재도약을 준비합니다. 지난 2년간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후원회를 이끈 황금신 이임회장과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조은덕 취임회장의 제주후원회 이·취임식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임회장 황금신
희성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취임회장 조은덕
조은농장 대표

일시 2025년 1월 10일(금) 18:30

장소 아젠토피오레 컨벤션 1층 컨벤션홀

축하화환은 정중히 사양하며, 축하화환 대신 보내주시는 축하 성금은 제주의 아동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성금입금계좌 : 제주은행 700-100-782940(예금주:초록우산 제주후원회)